

호남 2조 5000억, 영남의 30% 불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여건 반영 안돼...1조 신청 광주 4000억으로 줄여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포함...무안공항과 갈등 소지 남겨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지역 속원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각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 시설,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이번 정부 조치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개발에 뒤처지고 기반·산업시설이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수혜는 타 지역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적은 인구에 기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에서 기재부의 '경제 논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4조1000억원 중 호남 2조5000억원에 불과=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

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예산 4000억원)으로 1건, 전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조원) 등 2건, 전북 새만금국제공항(8000억원),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등 2건이 포함됐다. 전체 건수로는 5건, 액수로는 2조5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지역이 8조2000억원에 달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지역은 3조9000억원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영남에 비해 호남의 예타 면제 규모는 3분의1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4000억원에 불과해 경남의 4조7000억원에 비하면 1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는 호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장에서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의도적으로 지역을 무조건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으며, 사업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추려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남 내륙철도는 4조7000억원

이지만 경남과 경북을 연결하는 기간망 사업이라는 점에 중점을 뒀으며, 광주에서는 AI집적산업단지 사업을 스스로 선정해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는 당초 인공지능(AI) 중심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을 1조원으로 해 신청했으나 정부가 이 가운데 6000억원을 2단계로 분리해 4000억원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도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1조원 사업이었는데, 이번 예타 면제 결과를 반영해 우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2단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탈락 사업 향후 정부 기준 넘어설지 우려도=광주시는 AI집적산업단지 사업 이외에도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8000억원) ▲광주 친환경 공기업 육성 프로젝트(3500억원) 등 2건을 제출했지만 이번 예타 면제에서 탈락했다. 시는 오는 광융합산업의 경우 오는 8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기재부의 높은 잣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 지역협력 회복 프로젝트에 포함된 친환경 공기업 육성 프로젝트 역시 순탄하게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 역시 신안~해남~여수(국도 77호선)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은 포함이 안 돼 자칫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사업이 반쪽짜리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여기에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남의 무안국제공항과의 향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내 또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에 이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국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반시설, 산업단지 등 지역 발전과 밀접한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역 쇠락 정도, 형평성, 균형 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지자체들도 지역 발전을 좌우할 대규모 프로젝트와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은 낮지만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과 사업, 예산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AI 집적단지, 첨단3지구에 인공지능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목포 대양산단에 가공시설·거래소 조성

광주·전남 전략산업 2건 선정

정부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는 과거 정부와 달리 SOC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타 조사 면제에는 공교롭게도 호남지역의 전략산업만이 포함됐다. 광주는 인공지능, 전남은 수산식품, 전북은 상용차 산업이다.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모든 산업에 적용하게 될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 기업 창업까지 광범위하다. 사업 부지는 광주 북구 첨단3지구 연구교육단지 내 66만1157㎡(2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이다.

사업비는 애초 1조원을 신청했으나 이번 심사 과정에서 우선 1단계 5년으로 정해 4000억원으로 감액했다. 사업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AI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 광·헬스케어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2만7500명, 창업 2000개, 인공지능 전문가 5150명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으로 국내외 산·학·연 연구 협업체계를 만들어 인공지능 R&D, 시험·인증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광산업 등과 연계해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한다.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전남도가 수산식품 생산에서부터 유통, 연구자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

한 사업이다.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일원 2만8000여㎡ 부지에 수산식품 가공시설과 국제수산물거래소, 창업·수출지원센터, 연구개발지원 시설 등을 갖추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이다. 전남의 고품질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중국 등 유망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사실상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인 셈이다.

전남도는 국내 수산물의 57%(184만톤)를 생산하는 제1의 산지임에도 그동안 낮은 부가가치 및 내수중심의 수산업 구조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3년째 예타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1300여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사업 탄력 받는다

1단계 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설 포함

사업비 1조원에 이르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예타 면제에 의해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경남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최종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 면제에 포함된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설 사업은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사업 대상 구간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2곳으로 오는 2020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이번에 예타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두 연도교 건설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돼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 계획

을 발표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고,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는 총연장 13.4km(해저터널 1곳, 해상 교량 2곳)로 국비 4828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목포권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와 연결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는 총연장 11.4km(교량 4개소)로 국비 229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도교가 건설되면 고흥~거제 해안관광도로와 연계해 남해안 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500만명이 여수를 찾고 있어 남해안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섬·해안 관광자원을 연결해 남해안 전체를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본격적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목포권과 여수권을 전략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연안을 따라 해양관광 거점과 이순신 호국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권에는 근대문화역사특구와 고히도 해상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여수권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중 완도~고흥 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은 포함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사업비 9000억원을 투입해 완도 고금면과 고흥군 금산면을 연결하는 도로 27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도(830호선)라는 이유로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1단계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이 이번 예타 면제에 포함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번에 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된 완도~고흥 간 서남해안 관광도로 2단계 사업도 차분하게 준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무안 ↔ 기타큐슈 온천패키지로 올 겨울 따뜻하게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 항공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오후출발(화,금,토)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4일
[정통] 539,000원~ / [포격] 609,000원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5일
[정통] 709,000원~ / [포격] 839,000원

무안 - 기타큐슈 겨울 온천여행

패키지 539,000원

문의 ☎ 1522-1901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VN 베트남 국영항공사(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실속]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899,000원~ / 5일 949,000원~

[노티,노음선]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1,099,000원~ / 5일 1,14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실속(세미더블)] 오사카, 나라, 교토 899,000원~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99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노티,노음선] 스펀, 단수이, 야류, 지우펀 699,000원~

◆ [고품격] 화련, 태로각, 지우펀, 야류 699,000원~

무안 ↔ 나트랑 2/2일 부터 출발

[휴양+노쇼핑] 나트랑 3박 5일 890,000원~

[관광+휴양] 나트랑, 달랏 3박 5일 1,050,000원~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실속] 729,000원~ ◆ [포격] 949,000원~

무안 ↔ 코타키나발루(제주항공)

목요일 출발(3박5일) / 일요일 출발(4박6일)

[호핑팩] 499,000원~ / [포격팩] 69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포격팩]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인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동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여행상품 : 1억 원, 국내상품 5천만 원),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부수 이익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상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수수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업(인원,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배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